

내일의꿈

내일서신 일상, 부활을 신다

사람in 내일 캄보디아팀 찌어 롬누얼 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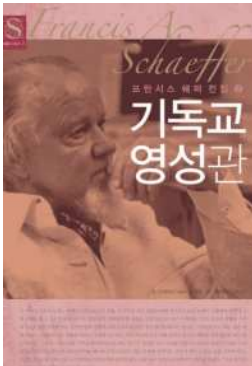
부서이야기 청년부 수련회

추천도세 일상의 유혹

소일묵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고 싶다

주제글 봄, 남자들의 설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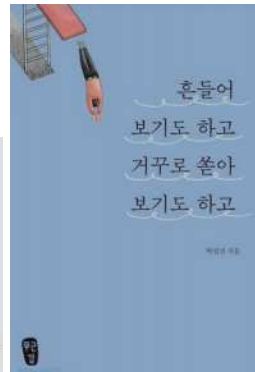
2020년 추천도서



8월
기독교 영성관
프란시스A.쉐퍼



9월~10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김형익



11월
혼들어 보기도 하고
거꾸로 쏟아 보기도
하고
박영선



12월
나를 돌보는 시간
김유비



사진 유승철 집사

Contents

내일의 꿈 2021년 4월(통권 291호)

- | | |
|---|--|
| <p>3 내일 서신
이관형 담임목사</p> <p>4 사람in 내일 88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포네이션 선교사 캄보디아팀 찌어 롬누얼 간사
글 찌어 롬누얼 간사</p> <p>6 부서이야기 청년부 수련회
청년1부 소통과 공감
글 청년부 최은주
청년2부 봄바람세미나
글 청년2부 29기 이상빈
청년3부 비대면 수련회</p> <p>13 캘리그라피
글·그림 263예친 황은파 집사</p> <p>14 추천 도서
일상의 유혹
글 이홍우 목사청년3부/예배위원회 담당</p> | <p>16 광고 신앙교육 콘텐츠 풍당
글 오경제 목사 소망1교구, 새가족·장년교육 담당
풍당! 콘텐츠를 보다, 복음에 빠지다</p> <p>18 나의 노래
새로운 계명
글 청년3부 윤덕은</p> <p>20 소소한 일상의 묵상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고 싶다.
글 내꿈팀 권지영 집사</p> <p>21 주제글 봄, 남자들의 설렘!
세 남자를 설레게 하는 너!
글 615 예친 한장욱 집사
남자의 봄, 설렘
글 615예친 신현수 집사
손때 묻은 자동차가 주는 설렘
글 청년1부, 이해석</p> |
|---|--|

내일의꿈 2021년 4월(통권 291호)의 모든 사진은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 수칙 이전 사진이거나 준수한 사진입니다.



이관형 담임목사

일상, 부활을 신다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
이 네 영광이 되리니(사 60:19)”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진 피터슨은 <일상, 부활
을 살다>라는 책을 통해 “매일 삶 가운데 부활의
감격과 의미를 온전히 누리며 살고 있는가?”라고
문습니다. 그리고 영적 무기력에 시달리는 성도와
교회는 ‘부활에 뿌리 박는 영성’을 회복할 때, 우리
의 삶 속에 경이로운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내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살피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聖)
금요일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
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죄와 사망에서 우리
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
리는 성찬에 참여하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마
음을 갖습니다. 나아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서 하나가 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4월의 시작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
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슈브(שוב)의 삶을 결단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부
활을 통해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길로 나아가야 합
니다. ‘부활에 뿌리 박는 영성’은 영적 무기력에 빠
진 삶에 생명을 불어넣는 열쇠이며 선물입니다. 이

것은 환난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
라(사 60:20)”고 선포하신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 선언이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
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
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
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
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
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
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사 61:1~3)”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
리에게 구원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예
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회복과 치유가 있습니다.
이 은혜의 해를 경험하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4월 한 달도 예수님의 심장
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N**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포네이션 선교사 캄보디아팀 찌어 롬누얼 간사



글 | 찌어 롬누얼 간사

그리운 한국으로 다시 부르심

안녕하세요? 저는 포네이션에서 캄보디아팀 사역자로 섬기고 있는 찌어 롬누얼 간사입니다. 2013년에 처음 내일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에서 현재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고 2017년을 끝으로 한국에서의 긴 유학생생활을 마치고 캄보디아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귀국 후에 한국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던 중 내일교회 캄보디아 팀 집사님께서 팀 사역자로 섬겨줄 수 있는지를 물으셨고 기도하면서 사역자로의 길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계명대학교 신학 대학원에 지원하여 신학생으로 캄보디아 팀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 출발을 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사역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중에도 은혜 가운데 캄보디아 팀에서 사역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일교회 포네이션 캄보디아 팀 사역자로

캄보디아팀 사역에서는 지금 새로운 부부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부부들이 교

회에 주일예배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래 교회에 나왔던 친구들 중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친구들도 많습니다. 이 상황이 하루 빨리 끝나기를 바라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팀 안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친구들을 섬기면서 기쁜 일이든, 힘든 일이든 주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기도하면서 배우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간구하며, 제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매일 매일의 기도는 이와 같습니다.

"저의 모든 행위를 살피시는 주님! 제가 마땅히 선대해야 할 사람을 도리어 상관없는 사람처럼 무시하며 그에게 선을 베풀지 않았던 일을 용서하십시오. 굶주린 사람, 아픈 사람, 갇힌 사람을 돌아보며 섬기기를 주님께 하듯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학교 학생으로

팀 사역자로 섬기면서 대학원에서의 공부를 병행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재미있게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학과에 친구가 없었지만 지금은 선후배와도 친해졌고, 코로나19로 인해 만나지는 못해도 통화나 문자를 주고받으며 대화할 수 있기에 참 좋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도 다른 나라에서의 유학생들로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의 학업이 우수하지 않아도 잘 이해해 주시고 이 또한 하나님이 제게 주신 큰 은혜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제가 신앙생활을 한 지는 17년이 되었고 그동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 모든 걸음 중 어느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현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지혜로 감보다 아 팀 사역과 신학 공부를 함께 가능하게 하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일교회 이관형 담임목사님과 선교부 소속의 모든 분들, 매달 사역비와 매 학기 장학금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모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큰 은혜로 생각합니다.

이 모든 사역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제가 더욱 기쁨과 사랑으로 팀과 이웃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평안과 사랑의 인사를 드립니다. N

청년1부 | 소통과 공감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글 | 청년1부 최은주

청년1부는 2월 21일, 28일 2번의 주일에 걸쳐 '소통과 공감'이라는 주제로 동계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코로나의 위협이 여전한 가운데 있었지만 방역 수칙들을 지키며 지체들과 좋은 강의를 듣고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는 이정현 소장님을 초청하여 결혼에 가장 필요한 소통과 공감을 할 때 필요한 대화 기술을 배우고 이론적 강의를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결혼에 관한 책들과 강의를 보고 들어서 색다른 것이 없을 것 같아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막상 강의를 듣고 보니 제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도 알려주시고 다시 정리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강의 중 기억 남는 것이 있다면 먼저 소통이 결혼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중 결혼 생활 속에서 배우자에게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고, 궁금한 것을 물을 수 있으며, 서로가 서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진정한 결혼이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이런 배우자를 만나게 되길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또 '결혼과 자존감'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들었을 때 상대방과 나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의 모습이었어도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며 안아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을 상대방에게도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로 인해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 말씀을 기억하며 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을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며 사랑해 주는 제가 되길 소망하는 귀한 시간을 수련회를 통해 가질 수 있었습니다. N



고엘($\lambda\kappa\lambda$), 채우심을 붙춑다.

글 | 청년2부 29기 이상빈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에 다가갈 기회를 연다.

2020년에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수련회를 비롯한 모든 모임들을 진행할 수 없었고 신앙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사그라들지 않는 이 여파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으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고, 저 또한 영적으로 방황하며 복음에 희미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 청년부 세미나 말씀을 통하여 복음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있었습니다.

복음 이야기에 무슨 율법?

이번 청년부 세미나 말씀 로마서 1장 1절~3장 20절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가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며 모든 상황을 뒤집는 대 전환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복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율법 이야기가 나오는지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고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곧 율법이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에 일치하는 삶이라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한 의로움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율법은 이것이 계명의 형태로 전해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심판의 기준, 거룩한 기준 앞에 나의 실체를 알다.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주일날 교회를 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고백하곤 합니다. 그러나 ‘죄의 기준이 곧 율법이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은 육체가 없다고 하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하고 김유비 목사님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기준은 다 지켜야 하지만 세상 어느 누구도 율법에 있는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율법 주신 것은 율법을 제시해야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네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임으로 율법의 역할은 “고인 물을 휘젓는 손가락 같은 역할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즉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탐심이 확 일어나서 내가 탐심을 가진 자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제가 한 때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했던 삶을 살아왔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율법이고 그 기준을 아는 사



봄바람 세미나 대표기도

람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에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감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반드시 말해야 되고, 다시금 듣고 또 듣고 자신을 살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주시고자 했던 말씀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아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 앞에 자신의 실체를 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을 다시 믿을 때 그 분에 대해 눈을 뜨게 되고 그 거룩함과 온전하심의 관점에서 자신의 눈을 뜨게 됩니다. 나 자신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느꼈고 눈을 뜨고 지각이 열리면서 회개하게 되고 그 때 하나님을 믿게 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고 놀라게 됩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대전환! 율법 외의 방식 복음!

이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율법을 지켜 의롭



직접 제작한 게임 현수막입니다

다 함을 얻어야 될 인간의 비참함을 벗어나 그 방식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 모든 사람이 다 아담처럼 창조자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한 자들 영원한 형벌에 받을 운명에 놓인 자들, 하나님의 생명, 평강, 기쁨도 누릴 자격이 없는 자들로 하나님을 거부했으니 우리에게 남은 건 절망 탄식뿐이다.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이라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절망과 탄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고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된 것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이것이 율법 외에 주어진 방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목 제물은 인간의 죄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전제로 하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기 위해 드리지는 제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한 방식으로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받을 진노를 자기 아들에게 퍼

부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크기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구원 받은 길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것을 새삼 다시 깨닫고 그 감사한 기쁜 소식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게임을 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를 두며 기다리는 인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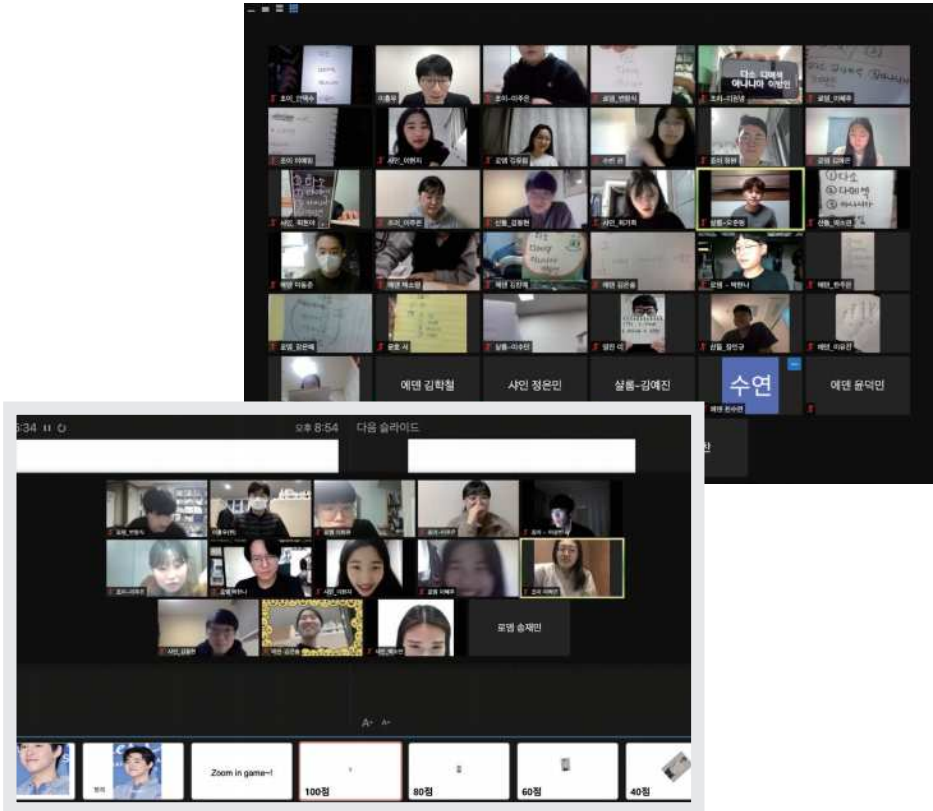


추억해 봅시다 링던지기 게임

하나님의 기준은 예배 헌금 착한 일 하는 것 아니라 거룩한 법 곧 율법이며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해도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는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 되심을 믿는 자에게는 화목 제물의 효력이 미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속량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고 모든 죄가 해결 되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더 말씀 앞에 다가가고 기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개인의 결핍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의지할 때, 그 결핍을 정확하게 아시고 메시지로 우리의 내면을 파고 드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진심으로 기도하며 다가갈 때 하나님

은 나를 그리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심을 오늘도 내일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N

“빛(The Light)”



- 2월 21일(주일): 권남계 목사(동일이단대책연구소)
- 2월 22일(월)~26일(금): e-Sports Week(게임대회)
- 2월 28일(주일): 전용희 목사, 임우진 간사(예수전도단 화요모임)
- 3월 1일(월)~5일(금): BTS Week(성경읽기모임)
- 3월 7일(주일): 이흥우 목사

33기 이혜주

이번 비대면 수련회는 나눔과 교제에 목마른 지체들에게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다같이 짧고 굵게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만큼 깊게 나누고 교제하기는 힘들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진행한 수련회는 코로나로 인해 혼란스러운 시기에도 예배와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의지가 드러난 것 같아 벅찬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특히 저는 BTS의 경우 기간을 길게 잡아 매일 조금씩 진행되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의 기쁨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지키기 힘든 꾸준한 경건생활을 훈련할 수 있었습니다. 타지에서도 함께하는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수련회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한 부분들(힘들어도 BTS 빠지지 않기, 할 일 많아도 필사는 미루지 않기) 지킬 수 있게 힘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38기 이상빈

수련회를 하면서 느낀 점은 직접 만나서 3박 4일 함께하는 수련회를 하지 못해 아쉽지만, 줌으로 재미있는 활동과 BTS와 같은 서로 성경을 나누

는 시간, 레크레이션, 게임과 같은 관심이 많은 활동이 있어서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도 이런 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37기 박소영

3주에 걸친 수련회가 시작되고 e스포츠 대회도 나가고, BTS 모임도 가지고 매주 교회 예배도 참석했습니다. e스포츠 대회 중 모바일 카트에 참여했는데, 아이템 전, 스피드 전 둘 다 참여하면서 교회 분들의 뛰어난 실력을 알게 됐고 또 재치 있는 실시간 중계와 댓글의 조합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BTS 때는 매일 다른 주제로 말씀 나누고 또 소모임 하면서 말씀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과 오늘 하루는 뭐 했는지, 기도 제목 등 여러 가지 나누면서 하나님에 대한 저의 생각이 더 깊어진 것 같고, 성경 필사도 했는데 생각보다 힘들지도 않고 말씀이 머리에 더 잘 들어오는 것 같아서 재미있었습니다. 또 주일 예배드릴 때에는 코로나 때문에 수련회를 계속 못 가서 그런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찬양하고 또 다 같이 울동하며 찬양하는 게 참 오랜만이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요즘 제 신앙에 대해 생각이 많았는데,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제가 되어

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던 3주였습니다. 좋은 수련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35기 오준원

처음에 수련회를 시작했을 때,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집중이 되지 않을 것 같았고, 게임을 한다는 것도 반갑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순장이라는 자리가 수련회에 참여하게 만들었고 어쩌다 보니 2주라는 시간을 산돌과 매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주일 말씀에서 신천지에 대한 강의는 항상 신천지를 배척에 대상으로 여기고 적으로 여겼던 저의 고집을 꺾을 수 있었습니다. 신천지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 존재임을 깨달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고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전도단 찬양집회에서는 얼마 만에 느껴보는 찬양의 열기였던지 너무 뜨거웠고 간만에 찬양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찬양을 하는 회중들의 모습이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인도자님의 말씀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하루

빨리 좋아지는 일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급한 일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일임을 알았습니다.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방식이 아닌 영원하시고 진짜 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sports에서는 저는 전부 탈락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순원들과 또 다른 산돌 지체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즐기며 함께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같이 게임하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BTS에서는 퇴근하고 집에 와서 쉬고 놀아야 할 시간에 참석해야 하는 상황이라 들어가기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일주일만 버티자 하는 생각으로 참석했습니다. 매번 의미 없이 흘러보내던 시간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니 뭔가 그 시간이 정말 귀하게 변화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불가능 할 것 알지만 말씀대로 살아보고 다짐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산성별로 나눔 하는 시간에는 얼마만의 순모임이었던지. 정말 반가웠습니다. 서로의 말씀에서 느낀 점들과 기도제목들을 나누는 시간이 정말 풍성했습니다. 모임 후에는 필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번 수련회에 가장 좋았던 시간은 필사였던 것 같습니다. 필사를 하며 몸으로도 말씀을 읽게 되고, 단어 하나 하나 깊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가 계속해서 넘쳤습니다.

이번수련회는 저에게 정말 큰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실존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소망을 맡겨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N**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셨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희임을
밝히시리라고

시편 118:28

Calligraphy by Calliheart



일상의 유혹

손성찬 / 토기장이



글 | 이홍우 목사
청년3부/예배위원회 담당

유혹에서 자유로운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삶은 곧 유혹과의 싸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독교 서적 중 유혹에 관한 대표적인 스테디셀러를 꼽자면 30년 전에 나온 리처드 포스터의 <돈, 섹스, 권력>(두란노)이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에도 드러나시피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는 다양한 유혹을 이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이 세 가지는 여전히 우리에게 큰 유혹입니다. 그러나 시대는 더욱 복잡해지고, 사람들의 인식과 가치관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 시대 유혹의 형태 또한 몇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경계했던 어떤 유혹이 지금은 가볍게 여겨지는 것들도 많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책 <일상의 유혹>은 지금 시대의 유행과 사람들의 인식을 예리하게 진단하고, 우리의 당연한 일상 속에 숨겨진 유혹을 소개합니다. 이 책이 흥미로웠던 것은 유혹의 개념을 거창하게 접근하기보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흔히 마주할 수 있는 것으로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한 번에 넘어뜨리는 큰 유혹이 아니라 너무도 당연한 생각과 감정이라 이것이 유혹인지도 모르고 넘어갔던 작은 유혹들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바쁘게 일상을 살다 보면 무엇이 유혹인지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큰 유혹만 경계하다 곳곳에 다양한 형태로 자리하는 작은 유혹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며 우리의 작은 유혹은 결국 우리 자신의 욕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혹에 대해 알려고 책을 열었다가 마지막에는 내가 추구했던 욕망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이 책은 9개 파트, 총 58개의 유혹이 등장합니다. 자칫 무거운 주제가 될 수도 있는 '유혹'에 관한 이야기를 재미있고 유쾌한 문체로 풀어갑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몇 가지 유혹을 소개합니다.

'제발 좀 미쳐라' 평균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유혹

남의 시선에 민감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유독 '평균'이라는 말은 크게 다가옵니다. '못해도 중간은 가야 한다, 모난 정이 둘 맞는다.'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남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나만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데에서 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SNS나 미디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접하는 시대에서는 더욱 이 '평균의 함정'에 빠질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남들과 다르게 사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리스도인은 다른 기준과 소망을 추구하는 존재들이니까요.

'라떼인간' 자기만의 방식을 고집하려는 유혹

“라떼는 말이야(나 때는 말이야)…”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습관적으로 자신의 과거에는 어땠는지를 이야기하는 꼰대들을 ‘라떼인간’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라떼인간이 됩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심리겠지요. 결국 상대방 앞에 자기를 드러 내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된 모습이 ‘라떼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교회라떼’도 있다고 말합니다. “나 때는 기도 많이 했는데”, “나도 예전에 다 해봤는데”.

'꼰대라 부르기 전에' 다른 이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유혹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른바 ‘꼰대’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쓴소리마저 이렇게 치부해 버린다면 누구에게도 배우지 못하는 또 다른 형태의 꼰대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꼰대라고 하기 전에 자신이 다른 사람의 말에 수용적이지 못한 사람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SNS의 맛' 달콤한 허상의 유혹

저자는 SNS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타인의 일상을 몰래 보고 싶은 관음의 욕망. 반대로 수많은 관음의 눈길이 자신에게 향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에게 유튜버 조회수가 중요하고, ‘좋아요’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SNS에 나타난 타인의 삶과 자신을 대비하는 비교의식. 마지막으로 실제 사회적 관계의 빈곤함. 이것이 SNS를 통해 사람들이 만족감을 얻는 이유라 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잘될 것이다' 신앙과 성공을 연결시키려는 유혹

크리스천들의 간증은 대부분 성공 간증입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임에는 분명하지만 차치 신앙과 성공을 등치시킬 위험도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성공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만 그렇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풍성한 간증이 있는 삶이라면 더 좋겠습니다.

이 책은 예리하지만 재미있습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작은 유혹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글을 쓰는 저도 지금 한 가지 유혹을 받는 중입니다. '지난달 오경제 목사의 글보다 더 잘 쓰고 싶은 유혹' **N**



콘텐츠를 보다, 복음에 빠지다



글 | 오경제 목사
소망1교구,
새가족·장년교육 담당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유튜브(YouTube)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유튜브(YouTube)를 통해 다양한 강의를 검색하고 공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튜브(YouTube)의 영상들은 다양한 강의를 제공하지만, 올바르지 않은 관점을 심어주기도 하기 때문에 영상의 건전성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신앙교육의 다양한 분야와 균형을 갖춘 콘텐츠 플랫폼(풍당-어플리케이션)이 CGNTV에서 개발되어 성도님들께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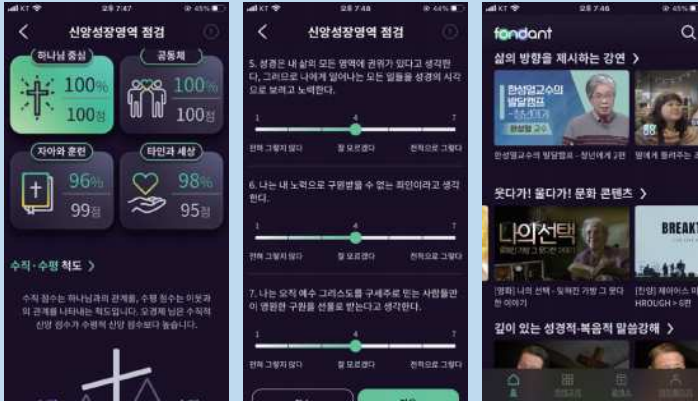
1. 풍당(fondant)?

풍당(fondant)은 ‘흘러넘치다, 빠져들다’라는 뜻의 프랑스어로 온 세상으로 복음을 흘러보내는 기독교 OTT 플랫폼의 의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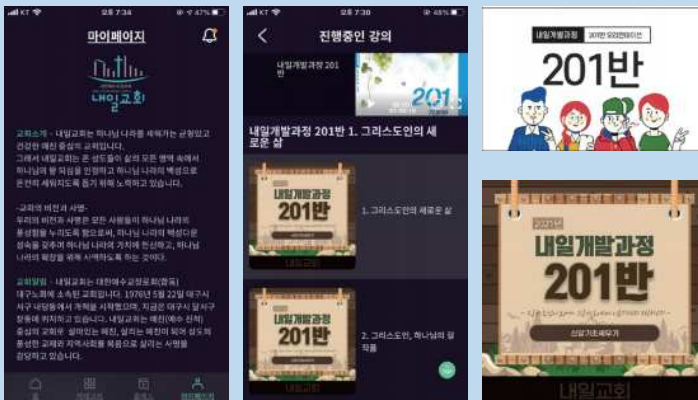
2. 콘텐츠(content)?

1) 신앙점검 : 나의 신앙성장의 척도를 4가지 영역(하나님 중심, 공동체, 자아와 훈련, 타인과 세상)에서 점검하고, 균형 있는 신앙성장을 위한 성경적 모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강의 : 순수 복음 콘텐츠로 이단, 광고, 유해 콘텐츠가 없는 순수 복음 콘텐츠 플랫폼으로 양질의 복음 콘텐츠가 있습니다. 영상의 다양성은 전 연령대를 소화할 수 있는 기독교 교육과 문화, 성경의 배경, 교리, 기독교 영화 등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클래스 : 풍당 플랫폼 안에서 내일교회의 맞춤 클래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내일개발과정 201반(온라인과정)을 풍당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인해 처음 시도하지만, 풍당을 통해 출석과 교육 등의 학적관리가 가능합니다. 이번 교육을 진행하면서 앞으로 교회교육과 설교 등 필요한 부분을 교회 클래스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3. 설치방법 (풍당 다운로드 링크 <http://www.fondant.kr/about/index.html>)

1단계 : '풍당'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안드로이드-Play 스토어, 아이폰-App 스토어)

2단계 : 가입하기(카카오톡, 네이버, 구글 계정으로 가입 가능)

3단계 : 마이페이지에서 '내일교회' 검색 후 등록 **N**

새로운 계명

글 | 청년3부 윤덕은



믿음 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저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뜻이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서로 사랑하라, 저는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사랑에는 수많은 종류가 있죠.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랑, 둘째로는 가족 간의 사랑, 셋째로는 친구 간의 사랑 등등,, 수많은 사랑이 우리 삶에 존재한답니다. 저는 이 사랑 때문에 삶이 윤택해지기도 하고 만약 이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있을 때와 달리 삶이 비교적 윤택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며칠 전에도 서울 생활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다름없이 배려하고 지냈을 때 다름이 없고 사랑이 있어서 그런지 윤택한 삶을 보냈다고 느꼈지만 그렇지 못 할 때는 사랑이 없어서 그랬는지 다름 속에서 상처 받으며 윤택하다기보다는 찝찝하고 마음이 되게 힘든 삶을 보냈다고 느끼곤 했어요. 또 서울로 오기 전에는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함 속에서 행복한 하루를 보냈었던 적도 있지만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투고 사랑이 없는 하루를 보냈을 때 그보다 힘든 하루가 없을 정도로 기운도 없고 뭔가

화해를 위해 다시 다가가기 힘들어 했던 기억이 나
 는군요. 우리가 사랑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반면
 사랑이 없을 때는 하나가 되기가 힘들뿐더러 홀로
 고립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에 저는 주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지키는 걸 늘 중요하다 생각하고 사랑
 이 부족하다 느낄 때 즈음 제이어스의 새로운 계명
 을 이라는 찬양을 들으며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을 갖는답니다.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네
서로 사랑하라, 말을 씻기라
모든 사람이 주를 보게 되리
주의 나라, 여기 임하네
사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그 순종의 길에서
세상은 주의 영광을 보리
주의 뜻 이뤄지리

가사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예수께서 명하신 새
 로운 계명을 따르고 지킨다면 우리를 통해 예수의
 향기가 쪽 퍼져 세상을 덮을 것 입니다. 그것이 주가
 원하신 바이고 그것이 우리가 지키며 일 순위로 뒤
 야 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며칠 전 이 단순
 해 보이는 계명을 지키며 노력하니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를 다니지않던 같은 학교 동기 형이
 교회를 나가게 되는 아주 기쁜 소식을 얼마전에 접
 했습니다! 저의 자잘한 말과 행동에서부터 뭔가 예
 수님이 느껴졌다고 말하더군요! 그때 문득 든 생각
 이 '과연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만이 전도일까'인데,
 저는 아니라 말하고 싶네요. 물론 그런 전도도 필요
 하지만 우리와 가장 가까운 가족, 이웃, 친구에게 예
 수의 향기를 조금이라도 말할 수 있게 주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제가 그 형을
 전도했듯이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보다 더 많은 좋은
 소식을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곧 전도이자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 애
 기하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
 랑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완벽하지 않아도 사
 랑은 모든 허물들을 덮듯이, 주께서 조건없이 사랑
 하신 것처럼 우리도 조건 없이 서로 사랑합시다. 우
 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주를 보는 그
 날이 오길 간절히 바라며 이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
 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노래는 우리의 가슴과 같아서 기쁠 때나 슬플 때, 감동을 받거나 외로움 속에 있을 때 내 가슴
 안에서 더욱 왕성하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시와 노래는 우리의 삶에 많은 곡절을 반주로 삼고 있지
 요. 내가 자주 부르는 나만의 노래에 스민 희노애락을 - 그 승화된 신앙 이야기를 내 삶 넘어 '우리'
 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내꿈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함께 '나의 노래'를 불러 볼까요!

소소한 일상의 묵상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고 싶다.

글 | 내꿈팀 권지영 집사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예배 마칠 때 기도했는데,
햇볕 짙짙한 오전, 정남향 치과 진료 의자에 앉아
빛 가운데 있는, 거울 속 형편없는 민낯을 보게 하셨다.

평소 피부 좋다는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그렇게 믿고 싶었나 보다.
내 신앙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있지 않았나.
얼굴이야 마스크로 잠시 가릴 수 있겠지만,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진다면 숨을 곳도 없을 텐데....
내가 가야할 방향을 이렇게 충격적으로 알게 하신다.

점점 더 다가워지는 봄 햇살과 그 분의 빛 가운데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영과 육이 되도록 회복되는 4월이길.....
치과, 초록색 천 아래에서 두려움에 떨며 기도한다.

+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이사야 60:20) 



봄, 남자들의 설렘!

온 세상이 코로나로 움츠러들고 일상이 멈춘 듯해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자연의 섭리는 여전히
흐드러지게 꽃은 피고, 새순이 돋는 모습을 보며
위로와 안심이 되고 설렘이 솟아나는 아름다운 봄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무엇에 설레시나요?
이번 달 남자들의 설렘을 이야기해 봅니다.

세 남자를 설레게 하는 너!

글 | 615 예친 한장욱 집사

아주 어린 시절 잠깐 너를 본 적 있지만, 너의 높은 벽에 난 다가갈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너에 대해 더 알게 되었고, 내가 대학생이 되던 1996년 대학캠퍼스에서 교양 과목 시간에 다시 널 만났지. 1996년 봄, 나는 다시 만난 너를 사랑하게 되었어. 그야말로 사랑에 빠진 거지.

너를 만나는 매 순간이 설레고, 넌 나에게 LOVE란 말을 많이 하게 만든다. 20여 년간의 긴 사랑.

넌 누굴까?

넌 바로 테니스...

(※테니스에서는 스코어 '0'점을 LOVE 라고 하다.)

2009년 대구로 오면서 내일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시골에서 대구로 와서 친구도 없고, 교회에서 어울릴 사람도 없었다. 교회 분들과 함께 어울리고 교제하고 싶어서 테니스 동아리를 만들기로 했다. 내일비전테니스클럽이란 이름으로 전단을 만들고, 교회 식당과 이곳저곳에 포스터를 붙이며 시작했던 때로부터 벌써 1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지금까지 매주 한 번의 모임을 이어오고 있다. 외로웠던 도시생활에 함께 할 수 있는 교우 분들을 만날 수 있었던 설렘의 시간들이기도 했다.

나의 두 아들 주원이, 요한이는 어릴 때부터 네



일비전테니스클럽에 따라와서 아빠가 운동할 동안 공놀이도 하고 달리기도 하며 모임이 끝날 때까지 쉬지 않고 뛰어 놀았다. 그러다 어느날 문득 내가 좋아하는 테니스를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운동하다 쉬는 시간에 애들에게 조금씩 테니스를 가르쳐 보았다. 약간의 소질이 보여 이왕 시작했으니 테니스선수로 키워보는 건 어떨까 싶어 2년 전부터 레슨을 시키기 시작했다.

볼과 테니스 레슨을 받은 지 두 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전국초등학교 테니스 대회에 주원이와 요한이를 출전시켜보았다. 둘 다 전혀 어떻게 해볼 수도 없이 0점으로 완패를 하게 된다. 공도 제대로 넘길 수 없었던 때였는데 준비도 전혀 되지 않은 아이들을 대회에 보낸 것이 너무 미안했다. 하지만 주원이와 요한이가 코트에서 있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설레었고 첫 경기를 치르고 나온 두 아들이 대견하고 눈물이 날 만큼 기뻐했다.

그 후 언젠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날을 고대하며 더욱 더 훈련하고 여러 경기에 참가하는 동안 자녀들을 테니스 선수로 키우고 있는 믿음의 부모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분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게 하셨으며 두 아이가 믿음의



친구들과 같이 운동하고 교제하며 큰 꿈을 키워나 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

또한 아이들이 처음 테니스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내일 비전테니스클럽에서 장로님, 집사님들이 애들과 같이 공치고, 응원하며 도와주셔서 아이들이 더욱 잘 성장하고 있는 거 같아 너무 감사하다. 덕분에 주원이는 대구광역시 소년체전 평가대회에서 우승을 하였고, 요한이도 전국대회에서 수차례 우승상을 받으며 꾸준히 성적을 내고 있다.

아내가 아이들에게 테니스선수로 그랜드슬램대회에 나가 우승상금을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은 적이 있는데, 대답을 듣고 놀란 적이 있다. 하나님께 먼저 10억의 헌금을 드리고, 부모님께 10억, 불우한 사람들에게 10억, 코치님께 1억, 나머지는 자기들이 쓰겠다고 했다. 테니스에서 러브(LOVE)란 말을 많이 해서 그런지 아이들도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자라나는 것 같다.

한편 걱정되는 것이 있는데 테니스대회 일정이 주일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일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혹여 아이들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되어 출발하기 전 새벽예배나 1부 예배를 드리고 떠날 때도 있고, 시합장 가는 차안에서, 타 지역

시합장에서 경기 끝나고 숙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면서 주일성수를 위해 애쓰고 있다. 하나님께서 두 아들의 길을 어디로 어떻게 이끌지 잘 알지 못하지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1년 다시 봄이 오고 있다.

새로운 시합 시즌이 시작되는 봄이 오면 나는 설렌다. 나의 꿈이었던 운동선수를 아이들이 하고 있다는 생각에 또 설렌다.

테니스는 아빠와 아들이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대화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이다.

함께 한다는 것은 언제나 설렘 가득이다.

마치며...

내일교회 테니스 모임인 내일비전테니스클럽과 초등테니스선수인 한주원, 한요한 선수에게도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유튜브에 한테니스 라고 검색하면 주원이와 요한이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N**

남자의 봄, 설렘

글 | 615예친 신현수 집사



자존감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하며 살아 왔다.
문득 거울을 통해 비치는 내 모습을 직시하며 현실감을 찾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근거 부족했던 약한 자신감마저 조금씩 잃어버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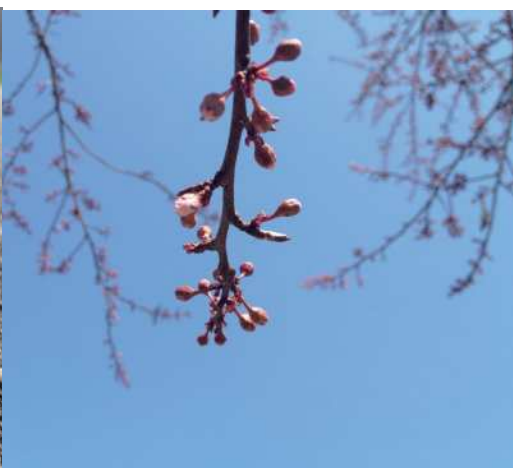
점점 흰머리가 늘어가는 동시에 머리카락 사이 간격은 더 넓어지고, 피부는
건조해지면서 탄력도 잃고 언제 나온 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배는 들어갈 줄 모
른다.

40대 중후반이 되면서 거울 앞에서 자신감이 잃어 가지만 반대로 점점 더 풍성
해지는 부분도 있다. 허전해 지는 부분(?)이 풍성해지면 좋으련만 그건 아니고,
호르몬의 영향인지 감성이 풍부해지는 듯하다.

드라마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다가 몽클해져 코끝이 찡함을 확실히 더 자주
경험한다.

10대 20대까지는 전혀 하지 않았던 시간과 세월을 생각하게 되고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계절의 소소한 흐름도 느낄 수 있다.

눈이 내려앉아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하는 풍경을 볼 수 있는 기회조차 희박한
경상도의 겨울은 그냥 춥고 삭막하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봄은 더 화려하고
따뜻하게 느껴지고 짧은 봄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꽃구경도 나서게 된
다.



봄은 어떻게 오는가? 연극이 막을 오르내리며 이야기를 구분하는 것과 달리 느린 듯하지만 활발한 여러 활동이 겨울과 봄 사이 그 알 수 없는 시간 속에 반복하거나 동시에 진행되면서 어느 덧 완전한 봄에 이른다.

흙의 틈새로 보이는 초록빛의 잡초 잎들, 녹갈색 잎에서 생기를 찾아가는 상록수 잎들, 속에 꽃을 품은 수많은 꽃봉오리들. 그러다가 어느 선을 넘으면 동시에 연두색 잎이 아니라 화려한 색상의 꽃잎을 먼저 터뜨린다.

봄꽃들 사이로 어지럽게 날아다니는 꿀벌들의 날개짓 소리, 흔들리는 꽃가지 사이로 비치는 햇빛은 더욱 찬란하고, 바람에 날리 듯 떨어지는 수많은 벚꽃 잎들은 마치 영화 OST와 슬로우모션의 한 장면처럼 드라마틱하다.

“설렘 :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들떠서 두근거림”

올해도 이런 봄이 오고 있다!!

남자의 봄, 어찌 설레지 않겠는가? **N**

손때 묻은 자동차가 주는 설렘

글 | 청년1부, 이해석



저는 자동차를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비싸고 좋은 자동차가 아니라 연식이 있지만 외형이 깨끗이 보존된 키를 돌려야 시동이 걸리는 차를 좋아합니다. 리모컨으로 시동을 걸고 버튼만 누르면 문이 열리는 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중고 자동차를 샀습니다. 당시에 엑센트라라는 소형차를 200만원이라는 거금을 주구요. 집이 시골이라 버스와 자전거로 학교를 다녔던 저에게 카세트 테이프를 넣어서 노래를 들을 수 있고 친구들과 마음만 맞으면 늦은 밤이라도 바다를 볼 수 있게 해주었던 고마운 녀석이었죠. 처음 이 녀석의 운전석 문을 열고 투박하게 생긴 열쇠로 시동을 걸었을 때의 감동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한 몸으로 출근할 때면 그래도 언제나 이 녀석 덕분에 설렌답니다.

‘나는 후회한다. 너에게 포마이카 책상을 사준 것을 지금 후회하고 있다. 그냥 나무책상을 사주었더라면 좋았을 걸 그랬다’

이어령 작가의 ‘삶의 광택’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처음부터 광택이 나 있는 포마 이카 책상을 사 준 작가는 자신이 어린시절 거친 참나무 책상을 마른걸레질로 수백 번, 수천 번이고 문질러 만든 '정성'과 '기다림'의 광택을 아쉬워합니다.

예전에 이글을 읽을 때는 작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번쩍번쩍 광이 살아있는 새 물건이 좋다고만 생각했었지요. 허나 한 살 두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옛날 것이 그리워지고 감성이 묻어 있는 물건이 좋아집니다.

중고차를 살 수밖에 없었던 형편과 고치고 닦을 수록 물건에 대한 애정이 가는 성격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광택이 번쩍번쩍 나는 새 차를 구매할 때보다 중고차를 가지고 와서 리스토어 할 때 더 희열을 느낍니다.

몇 해 전에 동생이 새 차를 샀다고 하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족시트에 붙어있는 비닐을 떼면서 새 차를 샀

을 때의 느낌이 '이런 거구나.'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도 옆에서 비닐 한 장을 떼 보았습니다. 역시 새 차가 좋아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먼지 쌓이고 오래된 차를 하나하나 정비하면서 느끼는 희열에 비할 바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장 박동(엔진회전수)이 불규칙적이고 헤드라이트에 백내장이 잔뜩 끼어있는 녀석에게 대수술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후 처음 시동을 걸었을 때의 그 설렘, 잔뜩 가족 냄새와 신기술로 포장되어 위용을 뽐내는 새 차에게서 느낄 수 없는 내 손길과 숨결이 가득한 차가 주는 감동입니다.

2030년을 전후해서 세계의 완성차 업체들이 내연기관자동차를 단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엔진 소리도 나지 않고 혼자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전기차가 나와도 여전히 키를 돌려서 시동을 거는 오래된 방식의 자동차는 저를 설레게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감성이 묻어나는 자동차를 좋아합니다. 



터치로 들어가는 교호



대한예수교장로회 **내일교회** NAE-IL PRESBYTERIAN CHURCH
427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동로 212 (장동)
TEL.(053)587-2121 FAX.(053)587-2124 <http://naeil.or.kr>

새벽기도회 1부 새벽4:50 / 2부 새벽5:50 | 주일1부예배 오전7:30 | 주일2부예배 오전10:00 | 주일3부예배 낮12:00
 청년2부예배 오후2:00 | 청년3부예배 오후2:00 | 주일오후예배 오후3:10 | 수요기도회 저녁7:30 | 금요기도회 밤8:30
 영아부 오전10:00 | 유아부 1부 오전10:00, 2부 낮12:00 | 유년부 1부 오전10:00, 2부 낮12:00 | 초등부 1부 오전10:00,
 2부 낮12:00 | 중등부 오전10:00 | 고등부 오전10:00 | 사관부 낮12:00 | 내일플러스 오전10:00, 낮12:00, 오후2:00,